

Totally Laparoscopic Uncut Roux-en-Y Gastrojejunostomy in Early Gastric Cancer Patient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상부위장관학과

김진조, 송교영, 진형민, 김 욱, 전해명, 박조현, 박승만, 박우배, 임근우, 김승남

(배경 및 목적) 조기위암환자들의 생존율이 좋아지면서 환자들의 수술 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.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담즙역류에 의한 잔위염과 덤핑 증후군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중요한 위절제후 증후군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담즙역류에 의한 잔위염의 경우 향후 잔위에 암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으로 이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 하겠다. 이러한 목적으로 일부에서는 Roux-en-Y 위공장문합술(이하 RYGJ)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RYGJ의 경우 많게는 1/3 가량의 환자에서 Roux stasis 증후군을 겪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.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문합법이 uncut RYGJ이다. 본 연구의 목적은 원위부 조기위암환자의 전복강경 수술에서 uncut RYGJ의 기술적 용이성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.

(대상 및 방법)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월 사이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자애병원에서 조기위암으로 전복강경하 원위부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uncut RYGJ를 시행 받은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수술은 5개의 투관침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D2 림프절 절제를 시행한 후 십이지장 및 위를 복강경용 선형문합기를 이용하여 절제하였다. 문합을 시행하기 전에 절제된 조직은 제대하부 투관침 자리를 약간 확장한 후 프라스틱 백에 담아서 제거하였다. Treitz 인대 하방 15 cm과 75 cm 지점에서 복강경용 선형문합기를 이용하여 측측 공장-공장 문합술을 시행하여 총 길이가 45 cm되는 공장각을 형성하였다. 형성된 공장각의 근위부 20 cm에서 측측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고 십이지장액의 위로의 역류를 막기 위해 위공장문합 부위 5 cm 상방의 수입각을 칼날이 없는 선형문합기를 이용하여 막았다. Roux각의 길이는 20~25 cm가 되도록 하였다.

(결과) 수술 시간은 평균 333분이었고 문합에 소요된 시간은 50분이었으며 사용한 문합기의 개수는 10.5개였다. 평균 절제된 림프절 개수는 28.5개였으며 상부절제연은 1.9 cm였고 림프절전이는 두 환자 모두에서 없었다. 수술 후 가스배출은 3일째에 되었고 유동식 섭취는 3일째부터 시행하였다. 환자들의 수술 후 평균 재원 기간은 7.5일 이었다. 수술 후 평균 2.5개월 추적 검사상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.

(결론) 전복강경하 uncut Roux-en-Y 위십이지장문합술은 기술적으로 용이하였으며 안전한 수술이었다. 이 문합 방법은 병변의 위치가 너무 높아 Billroth I 문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하리라 생각된다.